

# 大學에서의 宗教敎育

殷 俊 寬  
(延世大 神學科 敎授)

大學의 宗教敎育問題는 대학을 대학으로 키워 온 두 가지 요소, 즉 Hebrew 적인 것과 Hella 적인 것의 재금정에서 시작된다. 宗教와 文化로서의 이 둘의 역사적 관계가 피차 異質性과 긴장성을 경험하여 온 것이 사실이지만, 大學의 宗教敎育은 이 두 요소가 각기 지니는 自律性과 機能을 존중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 I. 大學의 宗教的 遺産

大學의 宗教敎育에 관한 논의는 大學 共同體가 이어받아 온 宗教的 遺産이 가지는 내면적 意味와 연관성을 재확인함으로써 문제 접근의 실마리를 풀어 갈 수 있을 것이다.

大學은 그 歷史的 原型(prototype)을 서구문화라는 토양 속에서 生成되었던 Universitas에서 찾는다 (우리에게도 太學, 成均館 같은 大學의 類型이 있었지만 이것을 世界的인 大學의 原型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러나 中世 Universitas가 태동되기까지, 그리고 그것을 태동시킨 서구문화의 저변에는 異質의이면서도 相互補完的인 성격을 지닌 두 종류의 文化材가 깔려 있었다. 그 하나는 히브리적(Hebrew: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는 이를 예루살렘으로 상징하는 啓示的, 宗教的, 神秘的 그리고 信仰的 차원이라 불렀다)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멘

으로 상징하는 헬라적(Hellenistic: 理性的이고, 分析的이며 또한 合理的인 것)인 것이었다.

그러나 宗教敎育的인 觀點에서 보는 關心은 어떻게 히브리적인 것과 헬라적인 것, 宗教的인 것과 敎育的인 것이 서로 關係하여 왔는가에로 옮겨진다. 물론 大學의 원초적 토양으로서의 서양 문화 속에는 「헬라적 언어와 개념을 가지고 예수의 事件을 서술한 사도 바울」, 「新플라토주의로써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고 구조화하였던 성 Augustine」, 「Fides querens intellectum—‘신앙은 앎을 추구한다’라는 신학적 도식을 만들어 낸 성 Anselm」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틀로써 기독교 진리를 체계화한 성 Aquinas」에게서 理念的 綜合의 시도를 엿볼 수는 있다. 그러나 히브리적인 것과 헬라적인 것의 綜合이 歷史的 現象으로 나타난 것은 오히려 組織으로서의 「學校」의 出現에서 이루어졌으며, 더 구체적으로는 宗教敎育을 目的으로 세워진 「大學」의 태동에서였다.

212 AD Origen 에 의하여 재구성된 Alexandria 學校는 하나의 都市로서 등장했으며, 文法, 地學, 天文學, 音樂과 함께 神學과 宗教는 커리큘럼의 중심을 이루었다. 「Monastic School」, 「Cathedral School」 그리고 「Parish School」들로 이어진 初期 中世學校들도 Trivium(인문계열)과 Quadrivium(理工계열)으로 알려진 學問을 커리큘럼화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宗教敎育을 실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그러면서도 信仰과 知성이 완벽한 綜合體로 구현된 것은 11세기 말의 Universitas 이었으며, Bologna는 法律과 自治權에, Salerno는 醫學에, Paris는 神學과 敎授治理에 각기 강조점을 두면서도 모든 大學은 宗教를 敎育하는 데 그 궁극적인 목적을 두었다. 그러기에 中世 Universitas는 敎權主義의 이었고, 神學과 宗教의 獨占이었으며, 聖 속에 俗을 예속시켰으므로 진정한 學問의 自由는 없었다는 비판에 동의하면서도, 다른 한편 宗教敎育의 次元에서 보던 Universitas야말로 宗教와 理性 사이의 敎育的 合成을 처음 시도한 歷史의 原型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中世 Universitas 이후 大學은 兩極으로 치솟았으며, 그것은 大學에서의 宗教敎育마저 양극화로 몰고 가기 시작한 기점이 되기도 했다. 그 하나는 神學과 宗教中心의 Universitas에 대한 人本主義의 반발이었고, 이로써 大學은 히브리적인 것을 거부하고 헬라적인 것만의 찬양으로 출발음을치기 시작하였다. 여기서부터 大學에서의 宗教와 理性은 敵對的인 關係 내지는 二元的 領域(신앙은 교회, 知성은 大學의 所有物)으로 分散되기 시작했다. 오늘의 大學 宗教敎育의 심층적인 문제는 바로 이 二元論에 기인한다. 그러나 르네상스적인 문화적 저항과 한편으로는 동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宗教와 理性을 敎育的으로 合成시키려 한 새로운 운동은 Luther의 Wittenberg 大學과 독일에서 일어난 大學運動으로 이어져 갔으며, 또한 스위스에서 이룩된 Calvin의 Geneva Academy도 그것이었다. 그리고 Oxford와 Cambridge의 모델을 따라 시작한 Harvard, Yale, William & Mary 등 美國의 大學運動에서 liberal education의 궁극적인 목적은 「神을 알고 그를 告白케 하는 데」

있었다. 이것은 다른 次元에서 中世 Universitas의 향수를 再表出시킨 것이다.

韓國敎育史 속에 歷史的 전환을 가져온 초기 基督教 學校들, 1885년의 광혜원, 1885년의 배재, 1886년의 이화와 경신, 그리고 1887년의 정신학교가 一般科目들을 통하여 理性的 開發을 촉구했을 뿐 아니라 「성경」 과목과 祭물을 통하여 信仰과 宗教의인 꿈을 심어갔던 것은 Harvard의 모델을 한국에 가져 온 초기 선교사들의 宗教敎育의 vision에서였다. 더우기 1915년 경신학교의 大學部(연희의 前身)에는 文, 理, 商, 農科를 개설하여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을 추구하였을 뿐 아니라 「神科」와 「의무 祭물」을 통하여 大學人의 靈性을 추구하여 갔던 것이다.

그러므로 大學의 宗教敎育問題는 大學을 大學으로 키워 온 두 文化材(Hebrew적인 것과 Hella적인 것)의 재긍정에서 시작된다. Hebrew적인 것과 Hella적인 것 사이의 歷史的 關係는 리차드 니버(U. Richard Niebuhr)의 분석에 따르면 「통치적 관계(christ above culture)」, 「도피적 관계(christ against culture)」, 「타협적 관계(christ of culture)」 그리고 「무간섭적 관계(christ and culture in paradox)」를 거치면서 宗教와 文化가 피차 異質성과 긴장성을 경험하여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大學의 宗教敎育은 이 두 文化材가 각기 지니는 自律性和 機能을 존중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본다. 바로 그 긍정에서 출발하여 宗教敎育論은 宗教와 文化가 大學의 場에서 어떻게 만나고 또 새로운 關係를 추구하여 갈 수 있는가를 묻게 될 것이다.

## II. 大學의 脫宗教化

그러나 大學의 存在論的 構造를 이루어 왔던 宗教는 점차 大學의 中心으로부터 밀려나기 시작하였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君主가 등단하기 시작하였다. 18세기 이후로 출현한 「科學精神(Scientific Spirit)」이 바로 그것이며, 그것은 大學의 目的, 커리큘럼 그리고 priority의 順位를 宗教中心으로부터 科學中心으로 바꾸어 놓은 歷史的 전환을 가져오기 시작한 것이다. 「科學精神」은 독일의 경우 大學院敎育과 전문화 敎育

(Specialization)을 통하여 구현시켜 왔으며, 미국의 경우 그것은 1862년 美國國會에서 통과된 Morrill Act로부터 비롯되기 시작한 「州立大學校」의 등장에서 구체화되어 갔으며, 한국의 경우 그것은 GNP 成長이라는 목적 성취를 위한 「기술교육」의 확대로서 大學의 구조 속에 파고 들었다. 이로써 宗教는 大學의 「핵」으로부터 주변으로 밀려나는 비운을 경험하기 시작했으며, 이 過程을 「世俗化」라고 命名하기로 하고 또한 이 現象을 脫宗教化라고도 부른다.

여기서 脫宗教化되어 가는 大學은 몇 가지 構造의 變化를 경험하기 시작했다. 첫째로 많은 기독교대학들은 州立 혹은 國立 大學校와의 경쟁에서 실패한 채 문을 닫아야 했다(미국의 경우 1962년에서 1973년 사이에 817개의 기독교 대학은 717개로 줄었다. 100개의 대학은 사실상 주립대학에 밀려 재정 경쟁에서 실패한 채 문을 닫았다). 그러나 문을 닫지 아니한 기독교대학들은 재경난을 극복하기 위해 등록금을 올려야 했으나, 세수에 의한 운영과 등록금에 의한 운영 사이의 경쟁에서 다시 실패한 기독교대학들은 점차 低質化되어 가는 또 다른 수난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大學의 脫宗教化 물결은 韓國的 經驗 속에도 심각히 찾아 오는 경험인 것이다. 또 다시 脫宗教化 過程은 오늘의 기독교대학을 教會的 統治로부터 國家統治로 바꾸어 갔으며, 聖職者中心으로부터 平信徒 지도력으로 옮겨 놓았으며, 義務 체플을 自由 체플로 바꾸었으며, 宗教教育和 學園宣敎를 담당했던 校牧(chaplain)들을 점차 campus minister(學園牧會者—교단에서 파견되어 온)로 바꾸었으며, 信仰強化 週間은 점차 그 意味를 잃어 가는 年例行事로서 전락하고 있다. 韓國에서의 基督教大學들은 民族文化 속에 기독교적 비전을 심기도 전에 세금의 위력으로 등장하는 國立大學校들에 의해 밖으로 밀려 나기 시작했음을 경험한다. 사실상 宗教教育을 목적으로 세운 基督教大學들은 오늘날 大學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이 脫宗教化 過程 혹은 世俗化 過程 때문에 심각한 正體危機에 놓여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의 大學에서의 宗教教育問題는 宗教科目의 설정, 다른 科目과의 균형문제, 교

수요원의 수급문제, 宗教科目의 커리큘럼 구성과 教育方法의 문제이기 전에 점차 脫宗教化되어 가는 世俗化 過程 속에서 宗教 자체가 사실상 부정되고 있는 無神論主義에 기인한다고 본다. 엄밀히 말해서 宗教教育의 문제는 教育學的이고, 行政的이며 또 制度的인 문제보다 더 깊은 문제인 神學的이고도 해석학적인 과제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 Ⅲ. 大學의 宗教教育의 必要性和 可能性

大學 속에 불어 닳친 脫宗教的 風土 속에서 여전히 大學의 宗教教育이란 필요한 것이고 또 가능한 것인가? 이 물음을 두고 통상적으로 두 가지 神學的 方法이 논의되어 오고 있다.

하나는 이 시대의 상징인 世俗化 과정과 그것에서 파생되는 脫宗教化를 歷史의 必然이나 運命과 같은 것으로 비판 없이 수용하려는 자세이다. 여기서 대학은 知性的 殿堂이어야 하고, 宗教는 教會(기독교의 경우)의 영역으로 귀속시켜야 한다는 해석에 이른다. 歷史는 변화되는 것이고, 그 변화가 파생시키는 역사적 과정은 거역할 수 없는 진리처럼 받아들이는 이 方法은(Stanford 大의 Alexander Miller, 북캐롤라이나大의 Harry Smith는 이 견해를 대변하는 학자들임) 大學의 歷史的 遺産인 宗教를 사실상 포기함으로써 學問의 정신적이고도 영적인 근거를 사실상 포기했으며 대학을 科學主義(scientism)의 손에 내맡기는 위험을 낳고 있다.

그러나 다른 방법 하나는 전자와는 정반대로 大學을 世俗化로부터 다시 구출하기 위해서는 대학을 다시 教會(기독교의 경우)의 統制 안에 두고 종교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대학의 宗教化는 체플의 의무화, 커리큘럼의 종교화, 종교지도자의 행정 참여 등을 의미한다(Elton Trueblood와 Edgar Carlson은 넓은 의미에서 이 학파를 대변한다). 그러나 후자로서의 이 방법은 신앙과 과학 사이의 새로운 변증법적인 綜合보다는 오히려 둘 사이를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면 적어도 二元論的 關係에로 물고 갈 위험성을 지닌다. 우리는 종교교육의 가능성을 이 두 가지 神學的 方法에서 추구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제 3의 신학적 해석에서 종교교육의 가능성을 추구하는 방법이 모색되어 왔다. 제 3의 방법이란 첫째로 과학과 學問的 우월성이 宗教性이라는 것과는 必然的으로 대립적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우주의 창조와 과정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科學은 神의 創造 질서의 한 부분이고 또 영역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새로운 긍정에서 출발한다. 여기서 神과 科學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설정된다(Stanford 大의 Micharl Polyani는 이 관계를 'fiduciary framework'라고 불렀다). 그러나 제 3의 방법은 창조의 한 질서로서의 과학을 긍정할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들어가 그 과학과 모든 학문이 추구하는 「眞理 그 自體」, 「궁극적 의미」(Paul Tillich)를 함께 모색함으로써 科學의 목적과 근거를 마련한다.

그러므로 제 3의 방법은 科學과 學問的 우월성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묻는 道德的이고도 靈的인 질문에 관심한다(Charles McCoy).

제 3의 해석에서 응용되는 대학의 宗教教育은 學生들로 하여금 「宗教的」이 될 수 있도록 教育하는 것이 아니며, 어떤 특정 종교의 敎理教育일 수도 없는 것이다. 오히려 제 3의 방법은 大學 共同體 속에, 大學人들(행정가와 교수와 학생) 속에 「觀點(perspective)」을 제공하는 데 관심하며, 그 관점을 통하여 자신과 세계, 역사와 학문을 새롭게 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가에 관심한다. 그러므로 대학의 宗教教育은 궁극적으로 大學의 宗教化도, 大學의 敎理化도 아닌 것이다. 오히려 學問的 우월성 속에서의(창조적 질서로서) 靈의 의미의 추구이며(구속적 의미로서) 나아가서는 人間의 의미의 추구이다(역사적 의미에서).

#### IV. 大學의 宗教教育 方法論

제 3의 방법에서 응용된 宗教教育의 神學的 명제는 教育적 구조와 과정으로 具體化되어 할 것이다.

#### 1. 正規科目으로서의 宗教教育

Teaching of religion과 Teaching about religion 사이의 논쟁은 제외하고서라도(여기서 Teaching of religion은 교회가 종교교육을 위하여 세운 교회계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리-신앙교육을 의미하지만, Teaching about religion은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립학교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法으로 제한한 객관적 역사적 해석으로서의 종교교육을 의미한다), 宗教를 강요하거나 교리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宗教教育은 Teaching about religion의 方法을 선택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종교적 결단은 각자에게 맡겨져야 한다고 본다.

Teaching about religion의 커리큘럼 구조는 무엇보다도 먼저 종교적 신념과 전통을 歷史的이고도 문헌적으로 접근하는 客觀性의 것이어야 하며, 두번째로 커리큘럼은 神觀, 人間觀, 歷史觀, 罪觀, 그리고 救援觀의 信仰의 主題와도 連關되어야 하며, 나아가서는 文學, 藝術, 音樂 속에 들어 있는 宗教的 영상(Image)이 어떻게 연결되어 왔는가를 다루어야 한다고 본다.

Teaching about religion으로서의 宗教教育은 커리큘럼의 객관화와 다양화뿐 아니라, 接近方法의 객관화와 다양화도 동시에 동반해야 한다고 본다. Teaching of religion은 설득과 강요의 요소까지를 내포하지만, Teaching about religion은 그것이 一方的이고 독백적이 아닌 歷史的이고 客觀的인 한, 敎育방법도 歷史的이고 對話的이며 또한 多元的이어야 할 것이다.

敎育方法의 한 model은 Notre Dame 大學의 Francis Fiorenza 교수 부부에 의하여 시도되어 온 歷史-批判的 方法(Historical-critical approach)를 들 수 있다. 「예수의 image」를 主題로 한 한 학기 과정은 예수의 image에 관한 다양한 歷史的 해석, 신학적 해석, 그리고 문학적 해석을 동원하여 객관적으로 분석·해석하게 한 후, 학생들이 가졌던 「예수의 image」와 비교하게 하는 도식으로 이어가는 방법이다. 두번째의 敎育방법론은 「신학적-사상적(Systematic-constructive) 접근방법」으로 불리운다. Stephens 大學의 Richard Gelwick에 의해 시도되어 온 이

방법은 위대한 神學思想家들의 主著 몇 권을 선택하여 체계적으로 배열한 것을 커리큘럼화한다. 예를 들면, John A.T. Robinson의 「神에게 솔직히」, Sören Kierkegaard의 *Purity of Heart*, Martin Buber의 *I and Thou*, 그리고 Paul Tillich의 *The courage to be*를 사상적 주제로 하여 강의와 학생들의 연구발표로써 함께 엮어 간다. 세계의 교육방법은 Indiana大學의 William May에 의하여 시도되어 온 「社會-文化的(socio-cultural) 接近」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방법은 宗教와 文化 사이의 相關關係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는 것으로서, 「宗教와 文化」, 「宗教와 文化의 世俗化」, 「宗教集團의 行態」, 「宗教와 삶(性, 죽음, 만남)」 그리고 「宗教와 政治」, 「世界 宗教들」, 「宗教와 폭력」 등을 主題로 하여 내용을 설정했을 뿐 아니라, 主題에 따라 추천된 문헌들을 연구하여 학생들이 토론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듯 위에서 제시한 正規科目으로서의 宗教教育이 커리큘럼의 다양화와 교육방법의 심층화를 거쳐 大學 커리큘럼 속에 정착되기까지는 몇 가지의 行政의 障礙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는 正規科目으로서의 보장이며(기독교계 대학에서는 많은 경우 교양필수로서 한 과목에서 세 과목까지 개설하고 있음), 둘째로는 宗教教育 교수 요원의 자격 규정과 함께 교수 자신의 헌신이 절감되어야 할 것이며, 셋째는 신학자와 역사학자, 신학자와 철학자 등 他學問의 전문인과의 team teaching을 적극적으로 모색·실시하는 일이며, 네번째로 宗教教育을 담당할 교수들이 「創造的인 方法論」開發을 위한 정기적인 세미나를 개최하는 일 등을 뒷받침하는 일들이다.

## 2. 宗教經驗으로서의 宗教教育

正規科目으로서의 宗教教育은 宗教에 관한 知識과 研究가 그 초점이 되지만, 종교경험으로서의 宗教教育은 그것이 강요나 의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한, 宗教的 眞理와의 만남이고, 對話이며, 동시에 參與를 뜻한다. 宗教는 知識과 경험을 同時에 포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知識으로서의 宗教教育이 經驗的 可能性을 배제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經驗으로서의 宗教教育은 知識을 外面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知識을 추구하는(Fides querens intellectum) 관계로 이어져야 하는 전제를 가진다.

宗教的 經驗으로서의 宗教教育을 가능케 하는 처음은 「체플」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것이 「의무체플(compulsory chapel)」이어야 하느냐 혹은 「개방체플(voluntary chapel)」이어야 하느냐의 논의는 大學의 性格과 哲學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지만, 「체플」은 知的 行爲이고 또한 祝賀的 行爲이면서도, 궁극적으로는 그것은 「진리」와의 만남의 사건이고, 삶의 영감적 사건이며, 삶의 참여와 결단의 사건이어야 할 것이다. 기독교대학에서마저 체플은 점차 世俗化와 多元化에 밀리기 시작하여 다소 탈색하여 가고 있는 현상은 기독교대학의 정체 위기의 징후일 뿐 아니라, 오늘의 大學文化의 精神의인場이 무너져 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체플」을 다시 大學의 知的이고도 靈的인 場으로 회생시켜야 한다는 뜻은 단순히 中世大學의 영광을 되살리자는 뜻은 아닌 것이다. 반대로 多元大學(multiversity)으로 확산되어 가면 갈수록 그 속에 있어야 할 삶과 靈이 궁극적 의미를 共感하는 場을 되살려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위하여 物理的 環境과 시설을 마련하는 行政的 뒷받침, 學園牧會者들의 전문 훈련, 創造的인 方法의 應用, 교수·학생들의 관심과 참여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宗教的 經驗으로서의 宗教教育이 관심하는 두 번째 영역은 「創造的 聖書研究(creative bible study)」이다. 創造的 聖書研究란 반드시 그 自體는 소그룹이어야 하며, 그 구조는 對話的이어야 한다. 特定한 敎理나, 편협한 神學的 解析이 성서를 연구하는 가이드라인(guideline)이 될 수는 없다, 오히려 聖書 그 自體와의 만남과 對話에서 聖書가 직접 말하도록 모든 채널을 열어 놓는 과정을 말한다. 연세대와 몇몇 大學 안에서 일고 있는 「교수 성서 연구회」, 「학생 성서 연구회」는 可能性을 지닌 모델로서 표현되고 있다.

宗教的 經驗으로서의 宗教教育은 宗教와 信仰의 훈련을 목적으로 조직된 「宗教 서어클」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주로 外國으로부터 들

어은 여러 종류의 종교서어클들(S. C. A., I. V. F., U. B. F., Y. M. C. A., Y. W. C. A., C. C. C., 그리고 Newman)은 자기 宗教的 강조점을 달리하는 그들의 多樣性이 多元大學文化 속에서 융납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한국의 종교 서어클들이 가지는 문제는 信仰問題와 신앙 표현(봉사)의 문제에서보다는 오히려 理想的 兩極化(극단적으로 社會參與志向으로 가든지, 아니면 극단적으로 敎理保存志向으로 출달음치는) 現象에 창조적인 비판 없이 휘말려 가고 있는 데서 찾는다. 宗教 서어클은 적어도 信仰의 本質的 經驗이라는 次元과 信仰의 表現으로서의 奉仕(Diakonia)라는 二重的 次元을 근원적이고도 공통적인 틀(framework)로 삼고, 그것을 함께 추구해야 하는 제도 수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多樣性 속에서도 本質的인 하나의 信仰經驗을 추구해 가는 동안 종교 서어클은 훌륭한 경험의 場이 될 것이다.

宗教的 經驗으로서의 宗教敎育은 그 외에도 「宗教相談」, 「大學敎會」, 「大學 주변에 세울 수 있는 學生 센터」 등 강도 높은 宗教行爲를 통하여 大學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3. 學問과 靈的 우월성을 동시에 그리고 함께 추구해 가는 교수들과 학급(classroom)에서의 그들의 現存 그리고 證言

科目으로서의 宗教敎育이나, 宗教的 經驗으로서의 宗教敎育은 必然的으로 「宗教的」 性格을 띠

수밖에 없지만, 學問的 우월성 속에서 궁극적인, 영적이고도 도덕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교수들의 人格, 言語, 「觀」, 그리고 해석은 곧 眞理의 體現(Incarnation)일 수 있기에 그것은 더욱더 영감적일 수 있을 것이다. 學問과 靈性을 함께 모색해 온 Princeton 大의 歷史學 교수 E. Harris Harbison은 한 글에서 그의 신념을 다음과 같이 피력한다.

“歷史家가 동시에 基督者가 된다는 의미는 그가 가진 歷史哲學에 의해서나 혹은 그가 기독교에 관하여 얼마나 많은 강의를 했느냐로써가 아니라, 「歷史를 向한 그의 자세」, 「歷史를 向한 두려움과 責任」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이다.” (E. Harris Harbison, “History” *Religious Perspectives in College Teaching*, Ronald Press Co., New York, p. 947.)

이렇듯 信仰과 學問의 統合的인 모색을 이루어 가는 교수들과 그들의 학급(classroom)을 통하여 大學의 宗教敎育은 새로운 次元을 찾을 것이다.

결국 大學의 宗教敎育은 大學의 宗教化도, 大學人의 敎理化도 아니어야 한다. 오히려 大學에서의 宗教敎育은 大學을 大學되게 하는 奉仕이어야 한다. 大學으로 하여금 神 앞에서, 歷史 앞에서, 그리고 人類 앞에서 責任的인 共同體가 되도록 돕는 데 그 目的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